5장 Sino-Mogol Relations

명 홍무제(1368-98), 영락제(1403-24) 시기의 중국-몽골 관계

홍무제 - 양쯔강 하류지역에서 세력 결집, 팽창, 몽골족을 외몽고 지역으로 몰아냄. 몽골 세력은 북원을 건국, 내몽고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저항, 나하추, 1372년 몽골군에 대패. 1387년 나하추의 항복을 받아내고 원과 고려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성공. 1388년 북원 붕괴. 이후에도 변방지대의 안전을 위해 외몽고 지역으로 빈번하게 원정군 파견. 방어요새 구축. 동시에 회유책을 병행.

홍무제는 instrumental hierarchy을 확립하는데 주력 - 북원에 대한 우위와 국경지대의 안전 확보. expressive hierarchy를 확립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

영락제 - 동몽골족(달단)과 서몽골족(오이라트) 사이의 대립. 초원지대를 양분. 이들 사이의 갈등을 이용하여 영락제는 instrumental hierarchy 전략과 expressive hierarchy 전략을 번갈아 활용. divide-and-rule의 의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후자가 전자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음. 동몽골족에 대해서 1403~1409년 expressive hierarchy 전략, 1409~1410년 instrumental hierarchy, 1411~1418년 다시 expressive hierarchy, 1419~1424년 instrumental hierarchy. 영락제는 재위 막바지에 세 차례에 걸쳐 동몽골족에 대한 군사원정을 감행. 마지막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망. 오이라트에 대해서는 1403~1412년 expressive hierarchy, 1413~14년 instrumental hierarchy, 1415~24년 expressive hierarchy.

몽골족은 명에 대해서 exit strategy와 deference strategy를 번갈아 활용. 복속의사를 표시하며 조공을 했다가 곧 관계를 단절하고 변경지역을 공격. 주목적은 exploitative self-strengthening. 부의 획득, 관직수여를 통한 위신의 제고, military protection. No identification strategy. 유교 패러다임이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

6장 Fundamental Institutions of Chinese Hegemony

중국 패권의 Constitutional Structure(Reus-Smit) - 원칙과 규범: 義, 無外, 天下一家, 華夷無間(promoting a universal ethical order), 以小事大之禮, 忠, 誠 順, 信, 仁, 恩, 德, 字小(relational rationality of serving the great by the small) 慕義歸向(procedural appropriateness of emulative submission)

중국 패권의 fundamental institutions – 조공과 책봉, directive embassy(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보내는 사신)

communicative diplomacy: 관계가 손상되었거나 아직 불안정할 때 파견하는 외교 사절단. 명 건국 후 고려와 일본, 몽골에 사신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림. 조공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일본에 왜구 진압을 촉구하고자 파견한 사신. 몽골 부족장에 관계를 단절할 경우 군사 원정이 있을 것임을 알리고자 파견한 사신.

전쟁: 평화와 안정, 질서가 깨졌을 때 이를 복원하고자 벌이는 전쟁. 義戰 (appropriate war)

무역: 貢品(정식 선물 교환), 私物(명 정부가 가격을 더하여(給價) 사절단이 가지고 온 물품을 구입), 사절단이 개인적으로 중국사절단과 거래, 중국정부가 국제무역사절단을 파견(정화의 원정), 국경지역에 차나 말의 매매를 위해 시장개설.

* 중국적 세계질서에 관한 기존 논의가 조공 체제의 social structure에 집중. 이 책은 조공체제의 구체적인 causal processes, practical agents의 전략을 보여줌.